



## 끝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인의 경주

(왕위 계승 자격)

존 다니엘 지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십시오. 싸우는 자는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는 자기를 군사로 택하신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승점을 따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도 정정당당하게 애쓰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합니다. 수고하는 농부는 그 열매를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3-6).

저작권 © 브라더 존 다니엘,  
우편 사서함 537,  
위성 도시,  
라고스.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책의 어떤 부분도 저작권자의 서면  
허가 없이는 복제, 복사, 전자, 녹음 등 어떠한 형태로든 전송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 인용한 모든 성경 구절은 킹 제임스 성경 공인역본에서 발췌한 것입니  
다.

## 봉납

---

이 책을 저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내 메리 블레싱스 다니엘에게 바칩니다. 그녀는 제가 엄격한 훈련을 받은 후 하나님께서 제 아래에 세우신 첫 번째 여성 제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순종적인 자녀들인 티모시 존 주니어, 벤자민 사무엘, 데이비드 조셉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제자 훈련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내하며 이해하고, 부모를 섬기고 겸손히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화해와 도움의 사역에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저는 이 책을 전 세계의 주님의 제자들에게 바칩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이처럼 담대하고 용감한 발걸음을 내디딘 모든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초대 사도들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자비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 소개

---

하나님의 영의 영감을 받아, 저는 전 세계 기독교계에 참된 그리스도인,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놀라운 경험, 가르침, 그리고 삶의 방식을 소개합니다. 이는 서기 66년부터 70년 사이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배교 이후 오랫동안 잊혀져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기독교계를 주도하는 신학자, 철학자 등은 이러한 경험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경험을 제자가 되려는 이들에게 위대한 증거로 전해줄 수 있는 누군가의 몸을 통해서만 전달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자와 철학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므로 제자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책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전 세계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초기 제자들과 함께 하였고, 이 마지막 시대에도 여전히 행하고 계시는 일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제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이 허리를 졸라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책을 읽고 기독교계의 혼란 속에서 누구를 그리스도인 또는 제자로 여길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존 다니엘 목사

<u>내용물</u>	<u>페이지</u>
제1장 - 비교 종교와 기독교	6-12
제2장 -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13-24
제3장 -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25-36
제4장 -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갖춰야 할 자질	37-48
제5장 - 진정한 제자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해야 한다	49-58
제6장 - 진실을 가로막는 장애물 제자도	59-70
제7장 - 반응 진정한 제자가 되십시오 결혼	71-82
제8장 - 자격 요건 왕좌	83-101
제9장 - 진정한 삶의 보상 (102-116쪽)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정을 마친 제자.	

# 제 1 장

## 종교와 비교

---

### 기독교

---

'종교'와 '기독교'라는 두 단어는 그리스도 공동체 안팎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종교를 통해서만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려 합니다. 사실 그들의 말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지만, 종교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많은 신자들에게 의해서도 행해지지만, 불신자들은 기독교를 실천할 수 없고 앞으로도 결코 실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실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 (죄인) 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선포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담겠느냐? 네가 훈계를 미워하고 내 말을 내팽개쳤으며, 도둑을 보고도 그와 한마음 이 되었고, 간음하는 자들과 함께 하였도다. 네가 악을 행하는 데 입을 열고,

혀는 거짓을 만들어낸다. 너는 앉아서 네 형제를 비방하고, 네 어머니의 아들을 헐뜯는구나. 네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나 나는 침묵하였으니, 너는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고 네 눈앞에 그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겠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 죽이고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사편 50:16-22)

종교는 개인이 혼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공동된 믿음을 가진 공동체와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개인이 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종교를 실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오직 한 가지 길, 즉 아버지(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실천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요한복음 14:6)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다른 종교는 이러한 계시를 가르치거나 보여줄 수 없으며, 오직 기독교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외부에서 작용하며, 우리의 외적인 본성에만 집중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정한 규칙을 고수하며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지만, 기독교는 우리 삶을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의 다른 부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먼저 판단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이와 같이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배에 들어가서 배설물로 나가 모든 음식을 정화하기 때문이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니라. 이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악한 생각, 음행,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악, 속임수, 음란, 악한 눈,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이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니라. (막 7:18-23)

성령께서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성령 없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의를 이루는 유일한 길로서 성령께 의존하는 반면, 종교는 인간의 자력에 의존합니다. 그렇다면 종교란 무엇일까요?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면, 종교는 초자연적인 통치력, 즉 우주의 창조주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믿음이며, 그분께서 인간에게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는 영적인 본성을 주셨다는 믿음입니다. 또한, 종교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위의 정의를 보면, 지구상의 90%의 인간, 심지어 악마와 그의 악령들까지도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자 주관자(하나님)의 존재.

너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떨느니라 (야고보서 2:19).

극히 소수의 무신론자(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와 악마를 제외한 모든 인간은 유일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종교를 실천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까요? 세상은 신을 믿지 않고는 종교를 실천할 수 없고, 신을 믿지 않고는 종교를 실천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교도들은 어떻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이교도들도 신을 믿고 종교를 실천하며, 그들의 종교는 이교주의입니다. 그들이 어떤 종파나 공인된 종교 단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신론자인 것은 아닙니다.

무신론은 이교도와 분명히 다릅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이라는 최고 존재가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교도들이 나무, 금, 은, 청동 등으로 만들어 숭배하는 우상들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 신으로 여겨집니다. 비록 그들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그들이 최고 존재를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악마는 재빨리 악령을 보내 신으로 가장하게 하고, 이러한 우상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을 걸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입합니다. 기독교를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기독교를 실천할 수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은 기만입니다.

해당 개인이나 단체는 종교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지만 신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식을 신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 집단으로는 이슬람교, 불교, 유대교, 힌두교, 그리고 성배 메시지, 로젠크로이츨단, 에칸카르 등 일부 신비주의 거장들이 창시한 종교 종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비롯한 수천 개의 종교 집단들은, 심지어 기독교라고 자칭하는 종교들 사이에서도 종교 활동을 하지만,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따르거나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외에 없느니라 (사도행전 4:12).

인간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악마와 그의 악령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했지만, 인류가 그 귀한 이름을 결코 믿지 않도록 속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종교 단체들이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경건의 비밀은 크도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으며, 세상에서 믿음을 얻으셨고, 영광으로 승천하셨도다. (디모데전서 3:16)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그의 어깨에 정권이 놓일 것이요, 그의 이름은 놀라운 분,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이사야 9:6)

유대인들에게 미친 예언자로 여겨졌던 위대한 예언자 무함마드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3년 동안 발가벗고 다녔다는 이 두 구절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과 총독 페스투스에게 유대인들의 비난을 해명하기 위해 연설할 때, 많은 학문이 그를 미치게 한다고 말한 것도 이 두 구절의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속고 있습니다. 종교는 여러 종파와 교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음녀와 땅의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인 큰 바빌론의 딸들입니다. 이 종교는 니므롯 시대(창세기 11:1-9)에 바벨탑에서 시작되어, 하나님께서 종교 집단을 흩으시고 니므롯이 죽은 후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와 아들 탐무즈를 거쳐 마침내 로마에 정착했습니다. 이 음녀들의 어머니로부터 오늘날 온 세상을 가득 채운 다른 종교 집단들이 생겨났고, 그들은 음녀의 딸들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종교는 이 세상의 체계에서는 인정받지만, 천국과 오는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 즉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의 신부이며, 그 자가 그들의 머리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주 예수께서 광야에서 나오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신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후, 열두 제자로 이루어진 첫 번째 모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기독교는 교회의 중심에서 사역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파들이 부르는 것처럼 여러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체제와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하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 체제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인정 받지 못하지만, 천국과 오는 왕국에서는 인정받습니다. 이들은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또한, 많은 단체들이 세운 물리적인 건물, 즉 교회라는 이름의 특정한 건물에 참 성도들이 모이도록 왜곡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마태복음 18:20).

이는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특정한 장소나 건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집에서 단둘이서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제 2 장

###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호기심 많은 누군가가 그들 한가운데에 폭탄처럼 던진다면, 자칭 기독교 신앙을 뿌리뽑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 질문이 기독교 신앙을 뒤흔들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솔직히 말해서, 이 질문은 자칭 기독교인들 사이를 뒤흔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다면, 기독교계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여호와의 증인 등 정통 교회의 신자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물어보면 대부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교회, 십자가별형제회, 킹 새배스 미션, 케루빔과 세라핌 등 영적 교회의 신자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물어보면, 그들 역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회, 풀 복음 교회, 성경 연합회, 디퍼 라이프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선교회, 조이 라이프 선교회, 뉴 베델 선교회 등과 같은 오순절 교회나 사역 단체에 가십시오.

그리고 그 구성원들에게 종교에 대해 물어보면, 또다시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올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신비주의 단체의 열렬한 신도에게 물어보면, 아마도 그들은 매주 일요일에 어떤 교파의 예배에 참석할지라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처럼 언급되지 않았지만 기독교와 연관된다고 주장하는 이 모든 단체들은 기독교인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정통 교회, 영적 교회, 오순절 교회라는 세 교파는 각각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세 교파 내의 그룹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교리가 존재합니다.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한 권 이상일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위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 즉 1611년에 출판된 킹 제임스 성경 한 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나 제자를 찾아보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분열되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체제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상황을 틈타 자신의 하수인들을 보내 기독교계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한 후,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저는 어떤 단체나 교회, 개인을 판단하거나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악마나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내일 그 사람을 변화시켜 당신의 종으로 삼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과 몇 년 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죄악에서 구원받은 죄인인 제가 감히 누구를 판단하려 드는 것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어떤 단체나 교회를 심판할 권리가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심판할 권리를 가지시며, 그분의 종인 우리에게 모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서 "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견고히 서 있고 이 인장이 있으니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불의에서 떠나라 (디모데후서 3:19).

디모데서에 언급된 인장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옥스퍼드 사전에서 인장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장은 문서나 편지, 소포, 상자, 병, 문 등에 부착하여 진품임을 증명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열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밀랍, 납 등의 조각에 문양을 새긴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것을 확인하거나 보증하거나 승인하는 행위, 사건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설명을 더 자세히 하자면, 신비주의 단체에 속하거나 그 출신인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영의 세계에서 인정받는 표식(서명과 함께 또는 서명 대신 사용되는 개인적인 인장)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보통 이 표식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이마에서 발견됩니다. 이 표식을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초를 굳건히 세워주셨어야 하는데, 당신은 이 표식을 통해 견고한 기초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기독교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어디에서 유래했습니까?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났습니다.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일 년 동안 교회에 모여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1:25-26) 이 성경 구절은 안디옥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일 년 동안 자세히 지켜보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 즉 그리스도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그렇다면 그 기초는 무엇인가?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이는 "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23)는 성경 말씀을 믿고, 자신의 죄악된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시하신 유일한 길, 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요한복음 14:6)

만일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 이시며,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요한일서 2:1-2)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집회 장소나 특정 교단이 아니더라도, 편안한 방에서 무릎을 꿇고 주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죽음이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의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분의 피로 당신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을 기록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당신을 위해 값을 치르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신은 거듭나게 되고, 당신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단계를 더 거치기 전에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3,5).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징계를 받을 것이다. (막 16:15-16)

다음 두 단계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정통 교파에서 전파하는 것처럼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며,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나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세례는 그리스어 '바티스마(Baptisma)'로, 물에 잠기거나 묻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마음으로 이미 믿고 있는 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진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오직 육신의 행위로만 증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났으면서도 물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세례도 이와 같은 모형으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21)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말을 보십시오. " 그

러므로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장사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4)

다시 말하지만, 이 의식은 탁 트인 흐르는 시냇물이나 강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사탄과 세상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연못이나 호수에서는 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강이 없는 주나 국가라면 예외일 수도 있습니다.

흐르는 시냇물에서 세례를 베풀습니다. 그런 다음 세례를 집행하는 목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서 물웅덩이에서 세례를 베풀는 것을 허락하실지 여쭙습니다. 흐르는 시냇물이나 강에서 세례를 베풀는 목적은 세상 사람들에게 '사라져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는 당신의 옛 삶이 그 시냇물에서 지나가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살며 시냇물에서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새로운 방언을 말하는 외적인 표징이며,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장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많은 목사들이 바울 형제를 통해 (고린도전서 12:30) 방언에 관해 말씀하신 주님의 성령의 뜻을 잘못 해석하여, 많은 자칭 신자들이 거짓을 믿고 눈먼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두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두 방언을 말합니까?

모두가 통역합니까? (고린도전서 12:30)

바울 형제는 천사의 방언으로 말하는 은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는 일종의 예언입니다. 형제자매 모임에서 이러한 은사가 선포될 때에는, 선포한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통역을 해야만 온 교회를 덕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계에서 이러한 은사는 매우 드뭅니다. 천사의 방언과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실제로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은 5%도 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주시는 분보다 은사 자체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일부 목회자들은 점치는 영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기도 합니다.

방언을 거짓으로 해석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방언 은사를 진정으로 받은 사람이 말하고 해석할 때에는 그것이 분명한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온 교회가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고린도전서 1:12).

14:5). 내가 앞서 그 사람의 영이 인치심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징으로 언급했던 다른 방언들은 사람의 방언입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나라의 시민도 아니고 그 언어를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주신 나라 사람이 그 방언을 들으면 알아들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5-11)

이는 더듬거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할 것이기 때문이 나라 (이사야 28:11).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들며 독약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막 16:17-18).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며,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4:22)

저는 이 세 증인의 진술을 믿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곧 주 예수님 자신이신 은혜, 그리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말한 은혜의 종들이 여전히 의심하는 모든 사람을 깨끗하게 해 줄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듭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누구나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불신자들에게 당신이 이제 인침을 받았다는 표징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기 전에 성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초대 사도들이 3년 반 동안 성결을 받고 주님과 함께 일한 후에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예를 듭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들은 말씀을 통해 성결하게 하시기 전까지는 성결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요한복음 17:17, 19 참조). 또한 그들이 3년 반 동안 기다려야 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요한복음 7:38-39).

39) 성령이 주어지기 전에는 아무도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즉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38-39, 19:2-7).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선택하셨을까요?

또 다른 언어?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이는 그분이 무한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은 그분의 영을 통해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신비를 이해하실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떤 언어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탄은 지상의 모든 인간 언어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천사의 언어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구와 인간이 창조되기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인간에게 자신의 영을 주입하여 인간의 타락을 초래한 후,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인간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신 후(창세기 11:1-9), 인간 세상을 조종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29)

사탄은 이 성경 구절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큰 권능과 지혜와 지식의 은사(에스겔 28:12-17) 때문에, 그가 아직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을 때(그러나 우리가 상속받은 예수님께 주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악령들을 보내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의 가족을 따라다니며 새로운 언어들을 연구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악령들은 사탄이 사람들을 알고 있는 바로 그 옛 언어를 사용하여 응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악령들을 번성시켜 임신한 여성과 태아들을 사로잡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들에게 반역적인 본성을 주입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한 이유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 내 어머니는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시편 51:5)

거기에 언급된 죄와 불의는 악령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후, 마귀는 일곱 영을 보내어 태어난 날부터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권위의 통로를 통해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가 결국 악마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이 영들은 당신의 언어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라나는 동안 당신을 감시하면서 당신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그들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 영들을 조상신 또는 친숙한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 매우 익숙합니다. 하지만 신비주의 세계에서는 그들을 운명과 생명의 순환을 지키는 수호천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께서 당신에게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언어는 친숙한 영들이 결코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주님과 소통할 때 그 영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은 당신이 하나님과 나눈 대화에 대해 무엇을 보고해야 할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거듭나야 하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마치 건물의 기초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집은 성령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지어야 하고, 집을 짓기 위해서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저의 저서 『순종, 하나님의 권위의 통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 참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행함으로써 말입니다(요한복음 8:31-32).

## 제 3 장

### 진정한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

#### 예수의 제자

이 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자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면 제자란 종교적 사상, 예술, 학문 등의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살아 있든 죽었든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과 생활 방식을 따르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모두 그 지도자의 제자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에서, 거듭나고 물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신자들 중 10%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우리 지도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교파 지도자들의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신자들이 진심으로 그들의 지도자를 따르고 있지만, 현재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닫은 많은 거물들에게 미혹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의 수석 사도였던 바울 형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내다보고 디모데와 온 기독교인에게 경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되, 모든 오래 참음과 교훈으로 하라.

때가 오면 사람들은 건전한 교훈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귀를 간지럽히는 선생들을 많이 모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귀를 돌리고 허탄한 이야기에 빠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2-4)

우리 신자들이 율법주의, 특히 종교적 율법주의라는 영역에서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율법주의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것이 아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건전한 교리에 어긋나는) 인간이 만든 일련의 규칙(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 교파 등이 강요하는 규칙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령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개인적인 관계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인 주 예수님을 소홀히 여긴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성령님을 소홀히 여겨왔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같은 실수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 광야에서 태어났고 이집트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 번째 할례를 받은 직후, 병이 낫자마자 예리코로 나아갔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 이르러 눈을 들어 보니, 거기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맞은편에는 칼을 빼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나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 적 편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5:13-15)

용감한 군사였던 여호수아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당시에는 천사였지만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불리는 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에 서려고 온 것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에 서려고 온 것입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누구의 편에도 서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계획이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도 저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으로부터 다른 사명을 받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와 함께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여호수아는 그 천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인도하러 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경배했습니다(우리는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즉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떤 지시를 따라야 하나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는 당신의 권위나 의지를 저에게 맡기라는 뜻이었고, 그러면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때부터 여호와의 군대의 보이지 않는 지휘관(여호수아는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며 싸웠습니다.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보았습니까? 만약 우리가 각자 모든 계획을 중단하기로 동의했다면,

우리가 모두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셨을 것이고, 기독교계의 모든 혼란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은 우리를 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니라 (로마서 8:14).

진정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이신가요?

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신 말씀, "내 성도들을 내게로 모으라. 곧 제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을 모으라" (시편 50:5)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부분을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를 모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도들을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희생 제사를 통해 그분과 언약을 맺은 자들만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언약을 맺을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희생 제사는 어떤 종류인가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희생 제사가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 제사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 없이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고(그분께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없고), 희생 제사 없이는 어떤 언약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는 희생 제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를 모두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 유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유언자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 효력이 있고,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9:16-17)

성경적으로 유언은 언약과 같은 의미이므로, 당신은 자신을 완전히 부인함으로써 (주님의 권위를 통해 당신의 의지를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이 주제에 대한 제 책을 참조함으로써)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희생 제물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께 바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돈, 땅, 집, 옷, 자동차 등과 같은 물질적인 것들이거나, 기도, 금식, 전도, 부흥회 조직, 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와 같은 영적인 것들뿐이라면,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행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 (로마서 12:1)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이르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하시니라 (히브리서 10:5).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 이 장소는 성령께서 우리 육신에 임하시는 곳, 즉 일종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이 진영 밖에서야 세상의 어떤 조직적인 종교 체계에도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참 장막(주 예수님)에 들어가 영과 진리로 그분을 예배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나오기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을 이곳에 데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훈련시키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아래에 여러분을 두 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참된 길을 인도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 그분께 순종하는 법, 그리고 그분을 위해 박해를 견디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분은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똑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1절에서 그분은 모세에게 성막을 가져다가 진영 밖에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모든 사람이 진영 밖으로 나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함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막에 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대신 모세를 통해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율법, 즉 인간의 이성 아래로 끌어들이려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십시오. 그 때가 오면 너희는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예배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지 압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그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입니다.)"

그러나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고 있으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21-24)

그 말씀과 함께, 특정한 장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영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성령께서 처음으로 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자연적으로는 공식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이용하여 자신을 정당화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많은 신자들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적어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모인 곳에는 그분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회당이나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이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는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상을 받았다. 그러나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히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공개적으로 상을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5-6)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산이나 예루살렘(교파들을 상징하는 곳)에 가면 누구를 예배하는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곳에서 당신의 임재를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의 이름으로 몇몇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십니다. \_\_\_\_\_

그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도록 언급되었지만, 그분이 누구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참조).

(7:21-23). 그리고 마태복음 6:5-6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회당이나 거리 모퉁이, 곧 집회 장소나 길거리의 공터에서 기도하면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자이니 그런 자에게는 상이 없느니라."

그는 기도하고 싶을 때는 개인 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은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제자, 그것도 참된 제자가 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a) 여러분은 그분과 언약 관계를 맺어야 하며, 이는 진영 밖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b)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 몸은 앞으로 겪게 될 박해를 통해 불타 없어질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처럼 온전해질 것입니다. 시편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여호와와 말씀은 순전하여 흠용광로에서 일곱 번 정련한 은과 같도다" (시편 12:6).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시험받는 흠용광로는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일곱 번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몸을 통해 이 순수한 말씀을 계속해서 시험하셔서 그 사람이 은처럼 완벽하고 영광스러워질 때까지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수 체계에서 숫자 7은 완전함 또는 완결성을 상징하고, 은은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정결하게 하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고 구원받을 때까지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새겨 넣으십시오.

- c) 여러분은 피를 흘려야 합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세우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를 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제 책 『순종: 하나님의 권위의 통로이자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 참조). 자신의 의지를 내어주는 것과 피는 어떻게 관련될까요?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정결하게 되며,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2)

9:22). 피와 의지 사이의 연관성은 지상의 육체의 생명이 당신 자신의 피에 있고, 당신의 인간적인 의지 또한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피가 완전히 말라붙고 다른 육체가 당신에게 주어진다면 (당신이 가진 육체는 썩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살과 뼈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이것이 당신의 영혼의 몸, 즉 천상의 몸입니다(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초막절에 대한 제 책을 참조하십시오). 그 몸 안에서는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의지할 수 없습니다. 즉, 지상의 몸에서처럼 자유 의지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그 피를 제단(예수님) 위에 너희에게 주어 너희 영혼을 속죄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피가 영혼을 속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레위기 17:11).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모든 참된 제자는 영혼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의 피를 흘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의 피를 아끼려 한다면, 당신은 멸망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제자됨이 바로 이러한 것임을 이해한다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입으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그 약속을 저버리면 영적으로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한다면 풍성한 은혜가 부어져 당신을 붙들어 줄 것이며,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만약 두려움과 세상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당신이 오랫동안 맺어왔던 사탄과의 언약은 계속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올 때 그 대가를 치르고 지옥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죽는다면, 온전한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은 이상 지옥에서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없습니다.

## 제 4 장

### 참된 제자의 자질

#### 예수

진정한 제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 없다면, 우리 주님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따르는 데 드는 대가를 계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에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여 완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하지 않겠느냐? 만일 기초를 놓고도 완공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저 사람은 건축을 시작했으나 완공하지 못했다' 하리라. (눅 14:28-30)

이는 우리 구주께서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는 대가를 계산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고난과 보상을 비교해 보시고 기쁨이 고난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성령께서 바울 형제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도 가지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느니라.

(빌립보서 2:5-9)

주 예수님에 대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그분께서 스스로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업적의 비결은 그분께서 기꺼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순종하셨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첫 번째 자질은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사야는 "너 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땅의 좋은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하며 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이사야 1:19) 땅의 풍요로움은 여러분이 제자 생활의 끝에 받게 될 보상입니다.

제자가 갖춰야 할 두 번째 자질은 열심입니다. 열심이란 열정을 의미하며, 열 정은 존경이나 관심과 같은 강한 감정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지식인 없이도, 재물 없이도 (어차피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도, 권력 없이도, 심지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도 잘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에게 큰 열심이 없는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참된 제자들을 광신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어느 정도 광신자라는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당신은 교육, 패션, 여자, 남자, 종교, 음식, 스포츠, 권력, 돈, 담배 등 무엇이든 간에 광신자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에든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구세주에 대한 큰 열정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대한 큰 열정으로 "주의 집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켰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2)

2:17). 그분은 어떤 하나님의 집을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해 열심을 내셨습니까? 바로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참된 성전입니다. 그분께서 성전에서 사업의 자식들을 쫓아내기 위해 만드시고 사용하신 채찍은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열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금도 우리 몸이라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업을 하는 악령들을 쫓아내고 계신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열심은 너무나 커서, 그분의 가르침이 가정이나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온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땅에 불을 보내려고 왔습니다. 만일 이미 불이 붙었다면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괴로운가! (눅 1:11)

12:49-50). 그는 이 땅에 진리를 전하고 인류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함을 알았기에, 어떤 위험도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그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매우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열심을 인정하시며 " 그는 타오르는 빛과 같았으니 너희가 그의 빛 가운데서 기뻐하기를 원하였더라" (요한복음 5:3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조롱을 받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당신의 열심을 보지 못하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참된 제자가 어떻게 주님께 열심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더 이상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위대한 사도 세례 요한이 아가보 선지자에게 했던 말과 그가 했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일들을 이야기하며 그의 마음을 바꾸려 했습니다. 바울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어찌하여 눈물을 흘리며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가까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13)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였을까요? 바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였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열심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참된 제자의 세 번째 자질은 믿음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바울 형제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믿음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11:1).

이곳에서는 믿음이 내일이나 오늘 나중에 오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당장, 즉 즉시 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소망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소망은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체란 우리의 감각으로 인지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각 기관, 즉 눈, 귀, 코 등을 통해 감각 기관으로, 인지하고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체는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증거는 입증을 의미하며, 입증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의 존재를 뒷받침하고 실재하게 하는 사실을 제공합니다. 증거는 그 대상이 나타날 때까지 그 대상을 대신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과 상황에 풀어놓는 영적인 능력 활성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믿음은 인간의 가능성의 영역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취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영역은 인간의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곳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의 힘은 가능성, 시야, 그리고 인간적인 이성 이 실패한 곳에서 시작되며, 그때 믿음은 하나님을 그 자리에 불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 (문제)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11)

(17:20).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갖고 그 믿음대로 행동한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6)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영역에서 살아갈 수 없다면, 당신은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는 어떤 행동도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믿음의 영역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한다면, 당신은 모든 인간적인 힘이 다할 때까지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을 신뢰한다면,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는 또한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자기 팔로 삼으며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레미야 11:12)  
(17:5). 만일 사람을 신뢰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주님께에서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욕구를 불평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당신을 실망시키셨으니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많은 어려운 시기, 질병, 시련, 상실(재정적, 물질적, 비물질적 등),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 매질과 투옥, 위험, 밤샘, 금식, 고난, 기근, 궁핍 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과 그 밖의 많은 것들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 모든 시험을 거친 후에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당신의 몸을 통해 흘러나올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시험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붙잡으십시오. 당신은 또한 그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12).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킵시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2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촉구하시는 유일한 싸움, 곧 선한 싸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마치 직업과 같아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종사하는 일과 같습니다. 현실에서 직업이나 사업을 잃으면 큰 손실을 입게 되고, 이는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믿음을 잃으면, 여러분의 모든 고난은 헛될 것이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네 번째 자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세상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이 진정한 사랑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란, 일이 잘 풀릴 때는 그분께 완벽하게 순종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사랑이 식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 누가 "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된 제자는 바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위해 목숨을 잃더라도 부활에서 다시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요한복음 12:25).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요한복음 14:21)

또한 예수께서는 “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요,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다.” (요한복음 14:2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길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며, 그러면 그분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당신 안에 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하나님을 어떤 그릇에 모시도록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며, 이는 형제자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12)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눈으로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20-21)

하나님의 말씀에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해 무엇이라고 명하셨는지 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축복을 베푸십시오. 심지어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는 아무도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한다면, 그들이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 곧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25)

하나님께 순종하는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며, 스스로에게 심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미움을 무시하고 주님을 성실히 따르면, 당신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님께서는 당신과 그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신다 (잠언 16:7).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그분께 굳게 붙어 있는 것을 보실 때, 가족 관계 등을 넘어, 그는 당신의 백성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다윗의 형제들이 (역대기상 12:16-18)에서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을 찾아와 당신의 믿음에 동참할 좋은 친구들이 생길 것입니다.

참된 제자가 갖춰야 할 자질은 많지만,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질, 바로 '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쟁은 무기, 전략, 전술을 사용하여 싸우는 과학이자 예술입니다. 따라서 전쟁이란 전쟁을 벌이는 것, 전쟁 상태에 있는 것,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에서는 양측 모두 위험한 무기를 사용하고, 수많은 전략을 세우며, 전술 전문가들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이제 참된 제자들은 우리가 전쟁 중에 있음을 깨닫고,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허황된 오락거리를 멈춰야 할 때입니다. 제자도는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치스러운 삶을 살거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에 맞서 죽음을 불사하고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스스로 분열된 나라는 황폐하게 되고, 서로 대립하는 나라나 집은 무너진다. (눅 11:17)

분열된 왕국이나 집은 설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참된 하나됨에 이르는 가장 간단한 길은 겸손, 즉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베드로전서 5:5, 제 책 『순종: 하나님의 권위의 통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 참조). 저는 지금 많은 목사들이 주장하는 교파 통합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바빌론의 통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멸망시키실 그녀의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는 절제, 고난, 순종, 위험에 맞설 용기, 무기 사용 기술, 적과 그의 전술에 대한 지식 등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제자가 적을 대적하는 무기는 금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적 지식 안에서 행하는 간절한 기도(탄식, 해산, 통곡, 부르짖음, 울부짖음, 통곡, 방언)입니다. 밤낮으로 적진에 폭탄을 던진다면 적은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적 지식(즉,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법)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즉 성령의 검이 없다면, 마귀가 당신을 끝장낼 것입니다. 마귀는 모순되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참된 메시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는 과학과 헛된 철학과 사람의 전통으로 여러분을 대적할 것입니다(골로새서 2:8, 디모데전서 6:20-21).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적 지식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릴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대적과 그의 전략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 이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교회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10)

하나님께서서는 교회가 어둠의 왕국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로 등록하기를 바라십니다. 어둠의 왕국은 오직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만 계시되기 때문입니다. 바울 형제도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 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엡 6:12)

참된 제자들은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싸움은 혈육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은 일치라는 미명하에 기독교 세계에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교파들과 초교파 교회 및 사역들을 통합하여 진영 밖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제자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마귀)는 실패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사탄 자신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종들도 의의 종들처럼 가장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13-15)

저는 이 성경 구절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시 백성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율법에 어긋나는 가르침을 전하고 행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초대 교회에서 제자들이 진리를 따르던 시절에도 많은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바울 형제와 그의 일행도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서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의롭게 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참된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대적은 자칭 하나님의 종들과 신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올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를 행하면서 그것을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당신을 극 심히 반대할 것이므로, 용기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모른다면 (건전한 교리인 현재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속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에게 저항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속이는 자로 낙인찍고 자기 회중에게 당신을 멀리하라고 경고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자질을 갖춘 참된 제자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는 당신을 질투하시고 마치 임신한 여성이 태중의 몸을 지키듯 당신을 지키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20)

## 제 5 장

### 진정한 제자가 포기해야 할 것

####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은 그분의 생명을 바치는 대가였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인간에게 결혼 생활이 성립되도록 하기 위해 똑같은 대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하십시오. (마태복음 19:5-6)

남자가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아내와 하나가 되어야 하듯이, 아내 또한 결혼이 완성되는 순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결혼이 이러한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양가 부모, 친척, 심지어 친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깨뜨리지 않도록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제자도는 결혼과 같으므로, 주님께서는 순종해야 할 훨씬 더 어려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와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와 형제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눅 14:26)

많은 목사들이 '미움'이라는 단어를 왜곡하여,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엡 6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며 사랑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해야 한다고까지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을 것을 아시기에, '만일'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참된 제자에게 있어 '미움'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들의 종교, 하나님의 계명에 반하는 전통,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에 빠지게 하는 생활방식에 대한 극심한 혐오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악한 영들이 그들을 조종하여 그들의 지배에서 벗어난 당신을 노리고 있으며, 이제 그들은 당신의 백성을 계속해서 지배하려 들고 있습니다. 너희의 이 별은 선한 목적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라. 너희는 적과 싸워 너희 백성을 해방시키고 그들 또한 구원받도록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며, 너희가 바로 그분의 연결고리인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다투게 하려 함이다.

장모님.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사람들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생명을 얻으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10:34-39)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잃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12:25)

사랑은 곧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만약 당신이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 딸, 아내에게 주님보다 더 순종한다면, 당신은 그분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몸이 느끼는 감정의 소리(제 책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를 참조하십시오)에 귀 기울이고 주님보다 그것에 더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눅 9:23)

당신은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즉, 당신의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어리석음, 연약함, 그리고 주님을 위해 겪어야 할 고난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일들을 해야 하지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2)

(고린도전서 1:25-29, 고린도후서 12:9). 그리스도를 위해 약해져야 그분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분을 위해 고난받아야 그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땅을 버린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서 백 배나 받을 것이니,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땅을 받을 것이요, 박해도 받을 것이며,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막 10:29-30).

참된 제자는 주님을 위해 집, 형제자매,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땅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백 배의 보상을 받겠지만, 그 보상이 나타날 때까지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여성 참된 제자가 버릴 수 없는 것은 남편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된 조언을 하여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 벌어진 것은 바로 이 신비로운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오류의 희생자라면, 남편에게 돌아가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도록 맡기십시오. 더 자세한 설명은 제 책 『순종: 하나님의 권위의 통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참조하십시오.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마십시오. 좀먹고 녹슬어 없어지고 도둑이 침입하여 훔쳐 갑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몸의 등불은 눈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순수하면 온몸이 빛날 것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을 미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택하고 다른 하나를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는 하나를 택하고 다른 하나를 경멸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19, 21, 24)

간음하는 자들아, 너희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니라 (야고보서 4:4).

사람들은 보물을 단순히 재산으로만 생각하지만, 보물은 그보다 훨씬 더 값진 물건이나 사람, 또는 소중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육, 직업이나 사업, 친구, 소유물 등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눈은 오직 한 곳에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오직 주님과 주님의 사역, 즉 복음 전파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서 세상의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시며, 당신의 사랑을 세상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목수 일을 그만두시고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후, 다시는 세상을 돌아보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에 기록된 초기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눅 14:33)

---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적 지식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버리다'라는 말은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곧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가 된 후에 주님께서 무한한 자비로 백 배를 주시겠지만, 박해가 따를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기대하십니다. 당장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나머지는 믿음의 가족, 과부, 고아,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등에게 나누어 주어 부의 올무에서 벗어나십시오. 이것이 제자도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이며, 모든 것을 버리고 시작했던 많은 제자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져 이 계명을 어긴 사람들은 바울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정당화하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고까지 말합니다.

도둑질하던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수고하여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얻은 것으로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십시오. (엡 4:28)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명하였느니라. 그런데 너희 가운데 일하지 않고 쓸데없이 행하며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권면하노니, 조용히 일하여 자기 빵을 먹으라 하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10-12)

만일 어떤 제자가 진정으로 성령을 따른다면, 성령께서는 그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이 구절들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철저하게 주실 것입니다. 따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그분께서 서기관들이 성경에 기록한 내용과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까지 말입니다. 공관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참된 제자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서신서에서 주님의 제자였던 바울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 바울은 그의 스승이자 구원자이신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모순되는 말을 했을까요? 이 질문에 올바르게 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반역과 이기심 때문에 인간이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세상 창조 이전에 정하신 완전한 뜻을 가지고 계셔서 모든 사람의 삶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에, 아직 왕을 주실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대신 모세를 택하여 말씀을 전하게 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라고 하신 계명을 어기고 그들이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롬 7:2-3, 막 10:11-12). 바울 역시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주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동기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오는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향한 큰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모세처럼 세상에 대한 큰 지혜와 지식을 갖추고 있었기에,

주님께서 지상에 계셨던 시기와 계절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그는 인간의 지혜로 재빨리 답을 얻었는데, 서기 30년부터 서기 70년까지가 40년, 즉 한 세대에 해당한다는 것을 계산해냈고, 이것이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의미하신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이 돌아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아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왔음을, 곧 문 앞에 이르렀음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24:32-34)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 통치할지, 그리고 인자가 마침내 어떻게 올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끔찍한 통치에서 벗어나 구름 속에서 주님과 함께 들림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나중에 바울에게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이 죽을 뿐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세대는 은혜 시대의 끝 무렵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때쯤에는 진정으로 제자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굶주림이 닥쳐왔고, 많은 이들이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으며, 어떤 이들은 남의 일에 참견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형제자매를 험담하여 먹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주제넘게도 그들에게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주님으로부터 온 완벽한 명령을 내리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고, 주님 외의 다른 곳에서 생존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이 글을 기억하고,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명한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참견쟁이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언급된 일을 행할 때에는 언제나 다음 사항을 명심하십시오.

여전히 여러분 자신의 주님을 믿고, 믿음이 자라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출 때까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시고 복음의 일로 살게 하심으로써 굳건하게 세우실 것입니다(고전 9:11-14, 로마서 15:26-27). 어떤 이유로 이 책에서는 주님께서 제게 계시하신 마태복음 24:32-34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관심 있는 사람이나 특별히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개인적으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참된 제자는 자기애를 버리고 형제자매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 성경 구절들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재물을 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24)

강한 우리는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하며,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 이웃(형제)을 기쁘게 하여 덕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5:1-2)

다툼이나 허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각자 자기 일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생각하십시오. (빌립보서 2:3-4)

이 어려운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7년에서 10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육신이 불타는 듯한 고통을 겪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백 배로 갚아주시기 시작했을 때, 또 평생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다가 겨우 3개월 전에 회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너 자신의 행복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당신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가올 주님의 왕국에서 주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서게 될 특별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될 기회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 제 6 장

### 참된 제자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

---

장점이 있는 것은 반드시 단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는 것은 반드시 나쁜 점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조건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

참된 제자의 삶에는 세 가지 주요 장애물이 있으며, 참된 제자의 삶을 방해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세 가지 주요 장애물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 곧 육체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삶의 교만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니라. 세상과 세상의 정욕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15-17)

이 인용문을 보면, 세 가지 주요 장애물은 (a) 육체의 정욕, (b) 눈의 정욕, (c) 삶의 교만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물들로부터 세속적인 안락함(맛있는 음식만 좋아하고, 잘 꾸며진 집에만 살고, 고급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등), 직업, 사업, 교육, 남성들의 전통 등에 대한 애착, 부모, 형제자매, 아내, 자녀 등 가족에 대한 애정과 같은 다른 방해 요소들이 생겨납니다. 이미 이룩한 높은 경지에 도달하더라도 말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족장 칭호를 포기하거나, 명예상을 내려놓거나, 종교 단체에서 맡았던 직책을 포기하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이 모든 것,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이 세 가지에서 비롯되며, 사탄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이용하여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주 예수님을 유혹했으며,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인간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타락했는가?

...사탄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는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으니 만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하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을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해 줄 만한 나무임을 보고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게 하였더라.

그들의 눈이 열리고 자신들이 죄 가운데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잎을 엮어 앞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1-7)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특정한 열매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의 간교한 수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여자는 그의 간계에 넘어갔습니다.

결국 인간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인간을 상대로 첫 번째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육체의 정욕), 보기에 아름다우며 (눈의 정욕),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삶의 교만) 탐스러운 나무임을 보았다.

---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결코 따르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자기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 눈의 정욕, 그리고 삶의 교만 때문에 인간은 타락하여 사탄의 조종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빠질 때마다 영적으로 벗어났을 상태(죄 가운데)가 됩니다. 첫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인류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인간도 사탄의 험난한 길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불같은 시험을 겪으시기를 기다렸다가 거의 거부할 수 없는 제안으로 그분을 유혹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으로 충만하신 주님은 광야에서 자신의 의지를 꺾으신 후, 지체 없이 마귀에게 강력한 공격을 가하셨고, 마귀는 잠시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사십 일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몹시 배가 고프셨을 때, 마귀가 다음과 같은 말로 그분을 대면했습니다.

- (1) 육체의 정욕: 마귀가 예수께 이르되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명령하라 하라 하니라 (눅 4:3). 마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지만, 그분이 육체의 감정에 이끌려 자기 뜻대로 행동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기록된 바와 같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명령하라"는 말씀으로 이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4절)

- (2) 눈의 정욕 :-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마귀가 예수께 이르되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네게 주겠다. 이는 내게 넘겨진 것이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될 것이다. (5-7절)

사탄은 경배를 그토록 갈망하여 눈의 정욕을 통해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으로 보고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그토록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왕국들을 사람에게서 빼앗아 예수님께 보여줌으로써 예수님까지 같은 정욕에 굴복시키려 했지만, 사람을 창조하신 주님께서서는 반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하셨느니라.

(8절).

- (3) 삶의 교만 :- 사탄이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와 같이 그가 너를 지키려고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발이 부딪치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9-11절). 이것이 사탄이 세상을 심하게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공격한 영역이다.

그것은 기독교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올바른 인용은 시편 91편 11-1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그 안에 교만을 부추기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길을 걷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12절).

주님께서서는 악마와 의견이 일치하거나 논쟁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이 순종해야 할 지시는 오직 아버지로부터만 와야 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악마나 사람들이 당신의 삶의 방식과 다른 선한 열매들을 통해 당신이 누구인지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지 않으신 일을 행하여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교만 때문에 실패할 것이며, 설령 성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결국 당신은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혹들을 이기신 비결은 그분이 아버지의 뜻으로 충만하셨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다른 뜻이라도 결코 틈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에도 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받은 지시에 어긋나는 생각들이 떠오르더라도 단 한순간도 묵상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다면, 반드시 끝까지 도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주요 경로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유혹도 우리에게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답은 이것입니다. "악마가 모든 유혹을 끝낸 후에 잠시 동안 예수에게서 떠나갔다."  

---

(눅 4:13)

누가 형제는 이 모든 것을 유혹이라고 불렀습니다. 사탄이 사람에게 가져오는 모든 유혹은 반드시 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논쟁하려다 파멸하고 속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특히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으로 속이려 하거나, 세상 체제에 매몰되어 마음이 진리에 굳어진 종교 신자들을 이용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물리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길로 돌리지 않고,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교만과 쓸데없는 정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깨닫기도 전에 마귀가 당신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주요 장애물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에게는 마귀가 보내는 수많은 유혹의 목소리가 당신을 돌아서게 할 기회를 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거부한다면, 마귀는 당신과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길을 가던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님,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는 장사 지내라."

그들은 죽었으니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눅 9:57-62)

첫 번째 제자는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주님께서 빵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기에, 그분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다면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 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매우 부유하시고 호화로운 집에 사실 것이며, 그분을 섬기는 자들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묻지 않았고, 따라서 어떤 대가가 따르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대가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부유한 분과 함께 살고 싶었기에, 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집이 없고, 다른 피조물들처럼 영구적인 거처를 가질 생각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 제자는 떠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한 곳에 정착하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리저리 옮기시기 시작하실 때,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은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참고)

(고린도전서 4:11). 여기 나오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제자는 상당히 이기적이었고, 그들의 욕망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제자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요청하셨지만, 그에게는 즉각적인 순종보다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미루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간접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보다 사람의 전통에 더 관심이 있었기에, 주님으로부터 그런 대답을 듣자마자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분의 계명을 어기게 하는 사람의 전통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마태복음 15:2-3 참조).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의 참된 제자들은 친척이든 아니든 간에, 죽은 자를 살리라는 주님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불신자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레위기 10:1-7 참조). 주님과 초기 사도들은 믿지 않는 친구나 친척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의 지시에 따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에는 예외였습니다. 세 번째 제자 역시 이기적이었지만, 그의 이기심은 가족 관계나 애착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너무나 집착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전에 가족의 지지를 필요로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큰 적이 될 가족(마태복음 10:36)이 어떻게 당신의 결정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족에 얽매어 있고,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께 대한 믿음을 타협하려는 몇몇 예비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쉽게 말할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내 백성은 내 마음을 막거나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그들 모두에게서 나오는 친숙한 영들로 인해 육체의 감정이 생겨나면, 그들에 대한 동정심이 아닌 연민을 느끼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제자도 가족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관계나 애착은 참된 제자의 길에 또 다른 장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자신들에게 집중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마태복음 12:46-50).

지휘관들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새 집을 지었는데 아직 봉헌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그 집을 봉헌하게 될 것이다. 또 포도원을 심었는데 아직 그 열매를 먹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또 약혼했는데 아직 아내를 맞이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아내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신명기 20:5-7)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 초대받은 사람들(제자들)에게 "어서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제가 땅을 샀는데, 가서 봐야 합니다. 부디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어떤 이는 용서해 주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소 다섯 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 보러 가야 하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아내와 결혼했으니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눅 14:16-20)

저는 율법과 은혜에서 이 두 구절을 인용하여 이중 참조의 원칙과, 이 세 제자가 내세운 세 가지 이유가 어떻게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신명기와 누가복음은 모두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의 장애물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재산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직장이나 사업, 학업 등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퇴직금이나 월 연금을 받거나, 사업에서 충분한 이익을 내거나, 졸업하고 자격증을 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제자는 새로 결혼한 아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보다는 아내를 돌보고 양육하는 데 더 집중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 제자를 건너뛰시고, 포기할 것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다른 큰 장애물은 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들아,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막 10:24-25)

그러나 부자가 되려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에 빠지고, 어리석고 해로운 많은 정욕에 사로잡혀 결국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9)

이 성경 구절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탄은 믿는 자들을 속이려고 '번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부를 위장하기 때문입니다. 번영이란 모든 면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을 의미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면 영혼이 번영하고 건강하며 재정적, 물질적 풍요도 누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유한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면 유혹과 올무에 빠지게 되고, 믿음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족, 과부, 고아,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등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어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어야 합니다. 이 책에서 언급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장애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 고백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2:42-43)

이들은 소속 교단에서 높은 직위를 맡고 있는 신도들이지만, 교단에서 쫓겨나 직위를 잃을까 두려워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과 하나 되기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었지만, 교단과 기독교계 모두에서 직위를 잃을까 두려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목격한 저는, 다음과 같은 소망을 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의 삶으로 부르셨거나 부르고 계신 모든 사람은  
장애물을 피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 제 7 장

### 진정한 제자의 반응

---

#### 결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은 제자가 주님을 따르기 전에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면 결혼도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결혼 생활을 누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혼은 잊고 여자를 향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신중하고 철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은 모든 사람에게 존귀한 것이며, 침실은 더럽혀지지 않은 것이다.

(히브리서 13:4)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결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면밀히 연구한 끝에, 성령의 감동으로 결혼은 모든 사람에게 존귀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에 관한 모든 것이 왜 존귀한 것일까요?

(a) 그것은 인간이 땅을 채우고 정복하여 땅 위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한 번식 수단으로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어 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창세기 1:28)

(b) 하나님은 인간의 외로움을 끝내기 위해 그에게 무언가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줄 동반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하시니라 (창세기 2:18).

(c) 이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둘째 하늘의 그 근거리에서 내쫓을 경건한 씨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를 가지시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어찌 된 일이냐고 묻느냐? 주님께서 나와 네 젊은 시절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으니, 네가 그녀에게 배신을 저질렀지만 그녀는 너의 동반자요 네 언약의 아내이다. 주님께서 결혼을 맺어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나 주님께서 영의 남은 부분을 지키셨다.

그렇다면 왜 하나인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이다. \_\_\_\_\_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살피고 아무도 자기 젊은 시절의 아내를 배신하지 못하게 하라 (말라기 2:14-15)

(d) 결혼은 인간이 다음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이 세상에는 부도덕이 없다.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 각 남자는 자기 아내를, 각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두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1-2)

(e)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리스도(남편)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정하신 큰 비밀입니다.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양육하고 돌보듯이, 주님께서도 교회를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요, 그의 살과 뼈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큰 비밀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합니다. (엡 5:29-32)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결혼이 모든 사람에게 존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결혼 적령기에 이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둘러 결혼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께 문을 닫으면 악마가 창문을 통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외로움을 끝내주시려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은혜와 진리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초자연적인 수술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데, 이는 인간이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의 입을 막으셨더라.

그 대신에 살을 취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  
시고 아담과 함께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제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  
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 부르리라. (창세기 2:21-23)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 곁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주님께 그 여인에  
대해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달려가  
그 여인을 껴안고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 여인을 속여 아담이 죄를 짓게 했  
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시자 아담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러자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어 내가 먹었습니다." (창세기 3:12)

아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대신,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께  
서 여자를 자신에게 주신 것을 탓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으로 인간에게 행  
하신 일 중 하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이  
제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 것이요 여호와께 은혜를 받는 것이니라 (잠언 18:22).

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를 좋아하던 남자가 아내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온갖 여자들에게  
달려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찾을 수 있다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에서 누가 자기에  
게 맞는, 혹은 완벽한 갈비뼈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를 찾는다는 것은 결혼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아무 여자로나 동거하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소중한 갈비뼈를 찾는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다시 들어가듯이, 잃어버린 갈비뼈를 찾아 제자리에 다시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린 갈비뼈를 찾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 잃어버린 갈비뼈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완벽한 갈비뼈를 찾으려면 신의 도움이 필요하며, 아무리 점쟁이나 신비주의자를 찾아가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진정한 배우자를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으며, 그들을 통해 활동하는 악한 영들은 결혼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결혼의 결합만이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을 물리칠 수 있는데, 사탄은 부부가 결코 결합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33).

이 모든 축복에 결혼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시로 부르시지 않았다면 결혼도 포함됩니다. 만일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당신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의 원칙에 따라 역사하셔서 당신과 같은 열정과 믿음, 사랑과 순종을 가진 적합한 배우자를 만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결혼이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결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의 제자는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섬기기 위해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고자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에 의해 고자로 만들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고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사람들에게 의해 고자가 된 사람도 있으며,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9:12)

본문에는 세 명의 환관이 언급되어 있지만, 그중 주님과 관련된 환관은 두 명뿐입니다. 나머지 한 명은 백성에게 종속된 존재이며, 순결을 지킬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환관이 되려면, 결혼이라는 책임을 더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겠다는 내적인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절제를 위한 은총을 구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미혼자와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유익합니다. 그들이 나와 같이 절제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게 하라.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7:8-9)  
바울 형제는 주님의 영감을 받아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여성을 탐하는 대신, 음욕을 억제할 수 없는 내시들은 결혼하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순결.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 거세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거세하신 사람들로, 결혼 생활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신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제자가 되기 전부터 이미 그러한 신성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태에서 거세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에 여자를 음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의가 아닌 거세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며, 그런 경우에는 순결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 믿음에서 떠나 거짓을 말하고, 양심이 굳어져서 결혼을 금하고, 하나님께서 믿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창조하신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디모데 전서 4:1-3)

주님께서는 바울 형제를 통해 결혼을 금하고 사람들에게 육식을 금하라고 명하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마귀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양심은 뜨거운 인두로 지져진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결혼이 금지된 곳, 즉 독신을 유지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발적인 서약이 아닌 곳에서는 부도덕이 만연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환관이 아닌 진정한 제자는 아무렇게나 결혼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결혼해야 한다.

진정한 제자는 어디에서 와야 하는가?

결혼하다?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도 평생의 언약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과는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신앙 배경을 가진 두 사람과 동시에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은 그 언약의 조건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백성이 불경건한 자와 또 다른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그의 이름은 질투 시니라 (출애굽기 34:1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교회의 모형)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려 할 때, 그분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그들이 해야 할 모든 일을 말씀하셨는데, 결혼도 그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도 말라. 혼인도 맺지 말라. 네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의 딸을 네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라. 그들이 네 아들을 나를 따르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니, 이와 같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여 너를 갑자기 멸망시킬 것이다. (신명기 7:2-4)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어떤 이유로든 돌아가서 이 민족들의 남은 자들, 곧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들과 합하여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들어가고 그들도 너희와 들어간다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실 것을 확실히 알라. 그들은 너희에게 울무와 덩이 되고, 너희 옆구리의 채찍이 되고, 너희 눈의 가시가 되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여호수아 23:11-13)

주님께서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민족(불신자)과 결혼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과 맺으신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믿는 자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여 주님을 따르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또한 이방 민족(불신자)이 이스라엘 자손(믿는 자들)에게 울무와 덩이 되고, 옆구리의 채찍이 되고, 눈의 가시가 되어 그들이 믿음을 잃을 때까지 괴롭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계명을 어겨 믿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그 여자나 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나 그 남자를 회심시킬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입니다. 누구도 회심시킬 수 없습니다. 회심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의 길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열려 있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 부음을 받아 왕이 된 솔로몬은 위대한 재능을 부여받았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갖추고 큰 부를 누린 그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딸들과 동침하여 길을 잃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자비가 아니었다면 그는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열왕기상 11:1-11). 이는 신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제자로 등록하기 전에 결혼한 사람은 아내를 내쫓아서 안 됩니다. 참된 제자들은 진영 내의 신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영 내의 신자들은 아직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진영 밖에 있으며, 그들은 자신의 몸을 주님께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써 언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고자 하는 참된 제자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종을 보낸 예를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만종, 곧 자기 소유를 다스리는 자에게 이르되,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어라.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겠다.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불신자들)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로 택하지 말고, 내 고향(교회 또는 신자들을 상징)과 내 친척(진영에서 떨어져 나와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상징)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 하였더라 (창세기 24:2-4).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관리하는 종(사람 안에 계신 성령)을 보내어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아내를 찾아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은혜와 진리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여 아들에게 완벽한 갈빗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분의 손에 맡길 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구별된 그릇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적합한 갈빗대를 찾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혼은 축복받을 것이며, 이로써 성경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둘이 하나보다 낫다. 그들이 수고하면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러나 넘어졌을 때 혼자인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를 일으켜 세워 줄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또 둘이 함께 누워 있으면 (기다리면)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열기를 얻습니다. (기름 부음) 그러나 혼자서는 어찌 따뜻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한 사람 (악마)이 남편을 이기려 한다면, 두 사람 (남편과 아내)이 그 (악마)를 대적할 것입니다. 삼중줄(사랑)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4:9-12)

# 제 8 장

## 왕위 계승 자격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며, 적그리스도의 무시무시한 통치가 시작되기 전에 자신이 들림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도래할 왕국에서 보좌에 앉아 통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자칭 신자들은 왕좌에 오르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조건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막상 말해 주면 "지금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초기 제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입니다."라고 말하며, 성경을 통해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을 설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건을 알고 나서 삶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통치 경쟁에 참여하기로 결심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은 속이는 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불릴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잘 연구하여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통치권을 얻으려고 애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게) 애쓰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지 못하리라 (디모데후서 2:5).

이 성경 구절은 통치하는 왕좌에 오르기를 열망하는 자는 누구나 성경을 연구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것의 조건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침서입니다. 흥미롭게도 모든 사람은 이 구절을 좋아할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다스릴 기회를 부여받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경쟁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경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모두가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 왕국에서와 같이 오는 왕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는 달리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달릴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달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모두가 결국 통치권을 얻을 자격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좌에 오르려면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마귀와 그의 시스템을 이겨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조건이며,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행할 무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

그들(승리자들 또는 남자아이 무리)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씀으로 그(사탄)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12:11).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이 악마와 그의 하수인들과 싸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을 가리키고,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데이크스 성경에 나오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인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크스는 성령이 아니며 결코 성령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후였습니다. 그분은 요한을 보좌로 인도하여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사들은 창조된 이후로 영광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증언할 말이 없으며, 어린양의 피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피는

이는 이전의 영광을 잃은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인간처럼 육체적으로 죽을 수 없습니다. 증언의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처럼 사탄과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그의 체제를 거부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사탄은 그들을 멸망시키고 세상에서 그들의 믿음을 잃게 하겠다고 맹세했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그가 제시한 모든 제안, 즉 직업, 교육, 재물, 명예, 왕위, 음식 등 모든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유다와 함께 언약의 피를 대신하는 포도주에 손을 담그셨을 때,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러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자신을 고발할 만한 어떤 죄도 없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는데,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30)  
사탄은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악마가 세상에 들어온 체계에 속하지 않으셨고, 사탄이 제시하는 모든 제안을 분명히 거절하셨으며, 사실상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형제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에서 승리자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신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땅에서 구원받은 십사만 사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마귀가 세운 종교 체계이며 온 땅을 지배하는 자들)이요, 처녀들인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그리스도의 영으로 상징됨)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첫 열매를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렸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1-5)

그들은 주님처럼 마귀와 그의 체제, 그리고 그의 모든 제안을 거부하고 이 땅에서 불을 통과하며 피로 큰 대가를 치른 사람들입니다. 진실로 마귀는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어떤 종교 집단에도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탄이 제시하는 직업, 사업, 교육, 재물, 음식, 명예, 통치권 등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 그분과 함께 다스리기를 택했습니다.

바울 형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의 말년에, 왕위 계승 자격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디모데와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싸우는 자는 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택하신 이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3-4).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놓고 경쟁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승리자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군사로 등록한 후에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 세상과 관련된 어떤 일(교육, 직업, 사업, 통치 등)에도 얽매이지 않기를 기대하십니다. 이는 여러분을 자신의 군사로 택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등록한 후에도 이 세상의 일상적인 일에 얽매인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그분의 뜻을 방해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탄과 이 왕국을 무너뜨릴 자들의 일원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군사로서 여러분의 유일한 임무는 주님의 오시는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며, 필요할 때 여러분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처를 제공하는 것은 그분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조건이지만,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의 산 증인입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3년 반 동안 참된 제자로 훈련받았습니다.

훈련 후, 저는 2년 동안 진정한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손으로 일하는 법에 대한 바울의 서신을 떠올리며 제 자신을 정당화하듯, 손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잘 되고 있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사업을 하던 중 10개월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다시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가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절대 뒤로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하셨고, 바울이 쓴 글의 진정한 의미와 그 이유를 알려 주셨습니다.

이 교회 시대에 승리하고자 하는 자들의 관심을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사도 요한의 계시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장은 특별히 교회를 향해 기록되었으며, 각 교회 시대마다 주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할 사역자들을 세우시는데, 그중 한 사람은 주요 메시지를 전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주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합니다.

그 교회의 천사라고 불리는 메신저.

누구든지 이 전령이 받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받는 사람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전령과 다른 참된 사역자들은 특정한 특징으로 구별 될 것이며, 성령께서는 그들을 통해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초기 시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하던 일을 다시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네게 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 버릴 것이다.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1-5)

에베소는 '바람직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들은 진리를 갈망하면서도 첫사랑(주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교회 사역자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모든 사역자들을 굳게 붙드시고 그들을 통해 온전한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시어, 니콜라당의 악행(세상과 타협하게 하여 평신도를 타락시키려는 시도)이 교회 안에서 용납되지 않도록 온 교회를 두루 다니시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사자가 2-3절에서 제자들을 칭찬한 후 4-5절에 전한 메시지는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첫사랑은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 시대는 스미르나 교회 시대이며, 요한 계시록 2장 8절에는 "스미르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 계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미르나는 몰약을 의미하며,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바르는 향수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쓴 향유입니다. 여기 계신 승리자들도 이 향유로 부음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 시대에 사자를 통해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난 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모든 승리자들이 대량 학살을 당할 것이며, 그들이 모든 교회 시대에서 그러한 대량 학살을 겪게 될 처음이자 마지막 승리자 집단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9절에서 그들의 충성심이 칭찬받았지만, 10절에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는 메시지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 교회 시대에 그들이 겪은 모든 고난을 통해 자신을 죽음에 내맡기지 않은 사람은 승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교회 시대는 페르가모 교회입니다. 페르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12).

페르가모는 결혼과 승격으로 상징되는데, 이는 스미르나 교회가 겪었던 환난에서 벗어난 이 시대의 신자들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대에 국가와 혼인 관계를 맺어 더 이상의 환난으로부터 보호받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승리자들은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 시대에 메신저를 통해 자신을 "양날을 가진 날카로운 검"으로 나타내셨는데, 이는 이 교회 시대에 전파되는 메시지가 양날을 가진 날카로운 검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메시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하거나, 사탄과 혼인하게 하여 파멸시킵니다. 13절에서는 그들이 칭찬을 받았지만, 14절에서 16절까지는 발람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 즉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믿고 세상의 체계에 섞이는 자들을 그들 가운데 두는 것을 허용한 것에 대해 회개하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니골라당의 교리는 백성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믿음과 타협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승리자들은 타협하는 형제들과 자신들을 분리하여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티아티라 교회이며 그들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티아티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빛나는 옷과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요한계시록 2:18).

티아티라는 희생 제사를 상징하는데, 그들은 주님께 큰 제물을 바치면서 동시에 우상에게도 제물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티아티라는 또한 나태한 도시 또는

그 시대의 교회는 온갖 우상 숭배를 들여온 교황 교회의 체제를 대표하는, 태만한 교회였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 교회 시대의 사자를 통해 자신을 "불꽃 같은 눈과 빛나는 놋쇠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사 사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불꽃 같은 그의 눈은 모든 거짓을 깊이 살피고 드러냈으며, 그의 발은 스며들려는 모든 죄를 짓밟았습니다. 19절에서는 그들의 선행, 사랑, 믿음, 인내, 희생에 대해 칭찬했지만, 20-23절에서는 이세벨의 영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어 하나님의 종들을 세상 체제와 타협하고 우상 숭배를 믿도록 가르치고 유혹한 것에 대해 책망했습니다.

이 일은 고린도전서 14장 33-38절과 디모데전서 2장 11-14절에서 여성의 교회 내 지위에 대해 명시한 말씀에 어긋나게, 그들이 여성 사역자들을 안수하여 가르치고 예언하며 성도들의 교회에서 여러 활동을 이끌게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교회는 남성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사자를 통해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신 지위를 여성들에게 허용한 악행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침상에 눕게 하시리, 즉 영적인 잠에 빠뜨리시리며, 이 교리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대한난 때 모두 죽이시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교회 시대에 승리자가 되려면, 그들은 이세벨 영의 행적을 멈추고 이 교리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성들에게 고린도전서 14장 33-38절과 디모데전서 2장 11-14절에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라고 촉구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 시대는 사대이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대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아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어 있다 (요한계시록 3:1).

사대는 남은 자들을 상징하며, 이는 당시 교회가 해이했던 시대에 나온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전령을 통해 자신을 "일곱 영을 가진 자요 일곱 별을 가진 자"라고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전령과 다른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곱 영을 받아 사역했으며, 그 영으로 인해 당시 교회가 해이했던 사람들의 모든 거짓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곱 영은 여호와와 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모략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이사야 11:2). 그들은 1절에서 그들의 행적을 칭찬받았지만, 2-3절에서는 티아타라에서 받은 거짓을 회개하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전령이 가르쳐준 것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불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교회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교회 시대는 필라델피아이며, 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3:7).

필라델피아는 형제애를 상징하며, 이는 그들이 서로를 향해 사랑 안에서 행했음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교회 시대의 메신저를 통해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자"라고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메신저가 거룩함과 진실함 안에서 행하고 다윗이 가졌던 것과 같은 권위를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 그리고 복종을 통해 그 권위를 얻었고, 이로 인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었고, 또한 사탄이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열었던 문도 닫아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칭찬을 받았고,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책망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들이 가진 것을 굳게 지켜 누구에게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 시대에 승리자가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교회 성도이자, 적그리스도의 끔찍한 통치에서 교회가 구원받기 직전의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이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와 시작이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요한계시록 3:14).

라오디게아는 미지근함과 자기기만을 상징합니다. 이는 이 시대의 신자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권리만을 추구하고, 그로 인해 기만에 빠지게 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에 미지근해지게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이 교회 시대의 메신저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은 바로 사람, 신실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 시작입니다. 이는 메신저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말할 것(즉,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며, 자신을 부르신 주님께 신실하고 주님께 진리의 증인이 될 것(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 대해 무엇을 말하든지 지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주님께 진리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 시작으로서, 메신저는 창조 당시의 아담의 특징을 지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동산(교회의 모형)에 두시고, 아내를 창조하시고 그에게로 데려오셔서 그를 먹이시고 교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메신저를 통해, 그리고 이 교회 시대의 모든 참된 사역자들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참된 사역자들을 위해 은혜와 진리의 원칙에 따라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칭찬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15-17절에서)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며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책망을 받았습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가난하고(진리가 부족하고), 눈이 멀었고(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는(죄를 지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18-20절에서 이 사자를 통해 이 시대의 교회에게 경고하십니다. "이 불 가운데서 내게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 얻는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요해지고 흰 옷(의)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치는

벌거벗음(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눈에 안약(성령)을 바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사자를 통해, 우리가 듣고 있는 소위 번영 신학이라는 메시지 때문에 이 교회 시대를 사로잡은 미지근함에서 회개하고 그분께 열심을 내지 않으면 바깥 어둠으로 던져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 시대의 신자들이 변화를 꺼려 한다는 것을 아시기에,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변화시키시도록 허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에 순종할 때, 당신은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개인주의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길을 잃었고, 액체 불이나 그 후의 비가 내려 남은 소수의 자들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길을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사람을 홀로 부르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홀로 부르시고 롯과 헤어지게 하시고 복을 주시며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창세기 13:6).

이사야 51장 1-2절(17절)을 참조하십시오. 많은 목회자들이 재빨리 자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가 바로 자신들의 교단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교파가 그 시대를 대표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교파가 최고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교회 시대에 말씀하시는 것(즉, 최악된 길에서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아와,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라는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수 세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 3장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들에게 억압받고,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 어느 집단이나 교파가 이 큰 오류에서 벗어났겠는가? 에베소에서 라오디게아에 이르는 일곱 교회 시대가 모두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종교 집단들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나타나고 있기에, 주님께 서는 이사를 통해 모든 교회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 날(이것이 언급된 날들입니다)에 일곱 여인(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언급된 은혜 시대의 일곱 교회)이 한 사람(예수)을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빵을 먹고(우리 자신의 교리를 믿고) 우리 자신의 옷을 입겠습니다(죽은 행위로 행하는 우리 자신의 의를 행하겠습니다).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기만 하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기만 하소서. 당신의 이름만이 우리의 수치를 없애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1)

이것이 오늘날 신자들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체나 교회도 여성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지 않은 직책을 맡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1:7)  
승리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보좌에 앉을 것이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

왕좌에 오르려면 반드시 승리자여야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상당수의 신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실제로 각 교단에서는 교인들에게 이를 권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이 그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승리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나아가 보좌에 이르는 지름길을 원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 길로 가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

(마태복음 7:13-14)

제가 이 부분을 밑줄 친 이유는 애초에 그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찾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론적인 방법도 통해서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맡겨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믿는 사람들 중 극소수만이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편을 통해 다윗 왕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와의 비밀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그들에게 그의 언약을 나타내 보이시리라 (사편 25:14).

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의 계명을 지켜 참된 제자가 되려 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승리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승리자가 되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씨앗이 사탄의 머리를 부숴야 합니다.

내가 너(뱀 또는 악마)와 여자(교회) 사이에, 그리고 너의 씨(적그리스도)와 그녀의 씨(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후에 나타날 남자 아이) 사이에 적의를 두리라

승리자들에게 이르시기를, 그가 네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여자가 이 르시기를, 내가 네게 큰 고통과 임신을 더할 것이니, 네가 고통 중에 아이를 낳을 것이요, 네 소원은 네 남편에게 있을 것이요,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시니라 (창세기 3:15-16).

주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셔서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권을 빼앗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통치권을 사람에게 맡기셨는데, 사탄이 그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내려오셔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살펴보신 후 사탄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는 훗날 여인에게 축복이 되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여인과 사탄, 그리고 여인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 사이에 심각한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인과 그녀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육신적으로 여인은 남자의 여성 부분으로,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지며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여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연약한 부분으로 여겨지며, 사탄의 머리를 부술 영적인 씨(남자 아이)를 낳도록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육신적으로 악마를 이긴 첫 번째 씨를 낳은 첫 번째 여인이며, 그 씨가 바로 주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여자의 첫 씨(교회)는 사탄의 머리를 부수거나 사탄을 이길 것인데, 그 씨는 바로 남자 아이(이기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6절에 이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쇠막대기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자였고, 그 아이는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그의 보좌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 아이처럼 하나님께로 들러 올라가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피해 광야(분리의 상징)로 도망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참된 자체는 모두 영적으로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며, 사탄의 머리를 부술 그들의 씨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씨(하나님의 말씀)가 사탄의 머리를 이기거나 부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은 창세기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a) 여자가 슬픔 가운데 아이를 낳을 것이다. 영적으로 이는 그리스도의 몸의 참된 자체라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낳기 위해 신음하고, 해산하고, 울부짖고,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할 것임을 의미한다(갈라디아서 4:19, 이사야 66:7-8, 계 12:1-2 참조).

(b) 여자의 소망은 남편에게 있어야 한다. 영적으로 이는 모든 제자의 소망이 주 예수님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자가 이 세상에서 의롭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바로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의 지상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에 따라야 합니다(하박국 2:4, 갈라디아서 3:11, 히브리서 10:38 참조).

(c) 그분께서 너를 다스리실 것이다. 영적으로 이는 주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분의 권위의 통로를 통해 당신의 뜻을 그분께 맡길 때 당신을 완전히 다스리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책 『순종, 하나님의 권위의 통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참조하십시오.)

주님께서 제자의 조건을 충족하고 승리하기 위해 힘쓰는 유능한 사역자들을 소수 세우셨으며, 진정한 제자가 되어 결국 승리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러한 사역자들 아래에 두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이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촉구하십니다(히브리서 13:7, 17, 야고보서 4:7, 베드로전서 5:5-6 참조).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으니, 중요한 것은 신음과 해산과 울음 등으로 고통 가운데 영적인 자녀를 낳는 제자, 곧 주 예수님을 사모하고(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남편이신 주 예수님께 자신을 다스리도록 순종하는(주 예수님의 권위를 통해 온전히 순종하는) 제자는, 그의 씨(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가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마침내 원수를 이길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그는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중 한두 가지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의 씨(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가 원수를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숫자 체계에서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모든 승리자는 첫째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슬픔 속에서 아이를 낳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도록 맡기는 것(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택하고 싶어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듣거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다릴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때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리니, 그들은 말(인간의 힘)을 타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고 싶지 않다면, 역경을 극복하는 것은 포기하십시오.

## 제 9 장

### 진정한 제자의 보상

#### 그의 기독교 경주의 종말

진정한 제자는 무엇을 얻기 위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자녀, 아내를 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며 이 큰 위험을 감수할 용기를 갖게 될까요? 바울은 그 답을 알고 있었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2)

만약 주 예수님 앞에 놓인 기쁨이나 보상이 없었다면, 그분께서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실 수 없었을 것이기에, 애초에 오시기로 동의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그 대가로 무엇을 얻게 될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골리앗과 싸워 그를 죽이는 가장 큰 위험을 무릅쓰기 전에, 무엇을 얻게 될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보상으로 받게 될 것이다.

다윗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수치를 씻어 주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할레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려 들겠느냐? (사무엘상 17:26)

다윗의 질문은 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겪게 될지 알고 있었기에, 어떤 보상을 받게 될지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결혼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린 이유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 누가 자기 비용으로 전쟁에 나가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양 떼를 기르고 그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이런 말을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냐, 율법이 같은 말을 하지 않겠느냐?" (고린도전서 9:7-8)

그는 자신의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방금 말한 내용은 주님께에서 나온 것인지 자신이 나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제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정을 마칠 때 받게 될 첫 번째 보상은 육신의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며,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부활시키겠다.

(요한복음 6:40)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헛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그분을 따르기로 하는 자는 누구든지 부활시킬 능력을 그분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12:25)

이 세상에서의 삶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원한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썩어 없어질 육신을 떠난 후 사람의 영혼이 영원히 어디에 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 있을까요, 아니면 마귀와 그의 악령들과 함께 불타는 유향 못에 있을까요? 영생이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천상의 행복을 누리 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로써 아버지와 교제하며,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다스릴 때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천상의 행복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모두 잃고, 하나님의 원수들(사탄과 그의 모든 하수인들)과 함께 불타는 유향 못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제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정을 마칠 때 받는 두 번째 보상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며, 아내로서 남편(주 예수님)과 위대한 혼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단장하였도다. 그녀에게는 깨끗하고 흰 고운 베옷을 입을 자격이 주어졌으니, 그 고운 베옷은 성도들의 의로움이니라. (요한계시록 19:7-8)

결혼은 세상에서 부부에게 가장 위대한 순간이며, 바로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로 함께하는 것처럼, 진정한 제자에게도 가장 행복한 순간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랑과 혼인 관계를 맺기 위해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양가 부모님과 친척, 친구들이 참석하는 결혼식에서 신부는 신랑과 함께 그들을 위해 준비된 위대한 도시, 곧 네모난 성읍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당신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당신은 세상 창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24)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마음)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1)

주님께서 신부가 어디에 계시든지 그분과 함께 살게 해 달라고 아버지께 특별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신부는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의 열매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된 제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정을 마칠 때 받는 세 번째 상은 왕이 되는 것이며, 그는 올 왕국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루어진 나라나 도시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

이기는 자,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요 (성령의 막강한 권능으로) 토기장이의 그릇이 깨지듯 그들이 다스릴 것이라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처럼 그도 떨리라.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26-28)

끝까지 인내하는 제자는 통치자의 직분을 받게 될 것이며, 성령의 강한 권능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나라나 도시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배정될 나라나 도시는 그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 얼마나 충실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귀족이 왕국을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열 명의 종을 불러 열 므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일을 맡아 하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여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하더라. 그가 왕위를 받고 돌아오자, 그는 돈을 주었던 종들을 불러 모아 각자 장사하여 얼마나 벌었는지 알아보려 하였더라. 첫째 종이 와서 이르되 주께서 주신 한 므나가 열 므나를 하였더라. 그가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 성읍을 다스릴 권한을 주리라 하였더라. 둘째 종이 와서 이르되 주께서 주신 한 므나가 다섯 므나를 하였더라. 그가 또 이르되 너도 다섯 성읍을 다스릴 권한을 주리라 하였더라 (눅 19:12)

19).

이 비유는 제자 한 명에게 얼마나 많은 나라나 도시가 맡겨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제자는 이처럼 충실하게 사명을 완수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손에 맡기신 직분이었으나, 참된 양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데 충실하지 못한 종에게는 그가 받을 보상이 빼앗겨 열 개의 성을 가진 자에게 주어졌으니, 이는 그가 더 많은 성을 소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는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한 파운드를 가져다가 십 파운드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하시니라 (24절).

참된 제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정을 마칠 때 받는 네 번째 보상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으로 삼고 다시는 나가지 못하게 하리라. 또 내가 그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성을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내 새 이름도 기록하리라. (요한계 시록 3:12)

하나님의 성전 기둥은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을 가리키며, 주님께서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로 최종적인 속죄를 이루신 후 아버지 앞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히브리서 7:26).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나라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주이신 왕께 경배할 것이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러 오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누구든지 왕이신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 자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집트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방 민족을 치시는 재앙이 임하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형벌이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모든 민족의 형벌이니라 (스가랴 14:16-19).

참된 제자는 왕으로서 백성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것이며, 대제사장으로서 천년 왕국 시대에 해마다 열리는 성막 축제에서 만왕의 왕을 경배하도록 그들을 이끌 것입니다.

참된 제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정을 마칠 때 받는 다섯 번째 상은 주님께서 그에게 저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저택의 크기는 그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 얻은 참된 양의 수에 비례합니다. 이 저택에서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회심자들을 접대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요한복음 14:2).

이것은 그분께서 끝까지 충성할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저택들이며, 그분은 지금도 더 많은 저택들을 짓고 계십니다.

참된 제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정을 마칠 때 받는 여섯 번째 상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니 둘째 사망이 그에게는 아무런 권세도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와 함께 천 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요한계시록 20:6).

대환난과 그 뒤에 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죽지 않을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죽은 모든 불신자들은 여전히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제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정을 마칠 때 받는 일곱 번째 상은, 심판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보좌에 앉아 타락한 천사들까지 심판하는 것입니다.

---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만일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받을지라도 너희가 가장 작은 일조차 판단하기에 부족하냐?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의 일들은 어찌 더 그러하겠느냐? (고린도전서 6:2-3)

성도들은 큰 백보좌 심판에서 보좌에 앉아 불신자들과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본래의 지위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번식을 위해 이 땅에 거인들을 낳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한 형벌을 위해 예비해 두셨으며, 그들은 성도들에 의해 죄인들과 함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타르타로스에 사슬에 묶여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죽은 죄인들이 지옥에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며 불타는 유향 못에 던져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참된 제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정을 마칠 때 보상으로 받게 될 다섯 가지 면류관.

---

올림픽 경기에 여러 종목에 참가한 운동선수가 우승한 모든 종목에서 금메달을 받는 것처럼, 참된 제자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정을 마칠 때 다섯 개의 금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금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부패하지 않은, 또는 승리자, 또는 역경을 극복한 자의 왕관.

경주하는 자들은 모두 함께 달리지만, 결국 한 사람만 달린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상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라. 상을 받으려고 애쓰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 애쓰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으려 애쓴다. (고린도전서 9:24-25)

이것은 모든 역경을 극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왕관이다.

이 세상 체제의 적입니다. 이것을 불멸의 면류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승리자들이 세상 체제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5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생명의 왕관, 또는 순교자의 왕관 또는 불멸의 왕관.

시련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낼 때 시험을 통과하면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12)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10)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또는 복음을 위해 고난받다 죽은 자들에게 주어질 면류관입니다. 또한 끝까지 고난을 견디다가 성령의 큰 부으심(성령 내주하심)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될 자들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이 성령은 주님의 군대 위에 부어질 것이며, 그들은 변화되어 부활한 몸으로 땅에서 걸어 다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51-54, 요엘 2:1-11)

(c) 영광의 면류관, 또는 장로의 면류관, 또는 대제사장의 면류관.

---

그리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십시오. (베드로전서 5:4)

이것은 대제사장 직분의 조건을 충족한 영적 장로들에게 주어질 면류관입니다(히브리서 7:3, 26).

보좌 주위에는 스물네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 위에는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쓴 스물네 장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4). 이것은 수백년 동안 감추어져 온 큰 비밀이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쟁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스물네 장로는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십사만 사천 명의 승리자(대제사장)를 가리킵니다.

14:1. 구약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볼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의 환상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성경 연구자는 그 누구도 스물네 장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었고,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을 따라 성막을 건축하라는 명령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장로들을 보거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사도행전 2:25-35)도 스물네 장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만이 유일하게 그들을 언급했는데,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곧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계 1:1-2).

스물네라는 숫자는 그곳에 스물네 명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역대기상 24장 1-19절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이 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 남은 아론의 아들들, 곧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제사장 직분이 나누어졌습니다. 다윗 왕은 엘르아살의 아들 사독과 이다말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엘르아살에게는 열여섯 명의 제사장이, 이다말에게는 여덟 명의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사독의 아들들은 시온에 있는 다윗의 장막에서 그들의 직분대로 섬겼고, 아히멜렉의 아들들은 기브온에 있는 회막에서 섬겼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 그는 기브온에 있는 다윗의 장막과 회막을 합쳤고, 두 곳에서 온 스물네 명의 제사장들이 각자의 직분대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역대기와 하나님의 산수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 직분의 숫자가 24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장로라는 단어는...

이는 그들이 역대기상에 언급된 직책보다 이 직책에서 더 오래 근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백과 백은...

요한계시록 7장 3-8절에 언급된 4만 4천 명의 승리자들은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들이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처럼 재건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길 자들입니다. 한편,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 언급된 자들은 지상의 모든 민족에서 온 대제사장들, 즉 이십사 장로들이며, 하늘의 하나님 보좌 주위에 앉아 있는 자들로서 언급됩니다.

그가 나아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가 그 앞에 엎드려 각기 하프와 성도들의 기도인 향유가 담긴 금잔을 가지고 있더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시고 그 봉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는 죽임을 당하시고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우리를 주의 피로 하나님께로 구속하셨으며, 우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7-10)

네 생물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보좌 앞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은 그의 책 1장과 10장에서 네 생물을 두 번 보았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피로 말미암는 구속은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나온 스물네 장로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구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높이 들려질 때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 이 스물네 장로(대제사장)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참된 제자가 바로 그 스물네 장로입니다.

신권직은 끝까지 지속될 것이며, 여기에는 진정한 제자인 여성들도 포함됩니다.

(d) 의의 면류관, 또는 그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면류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 뿐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7-8)

이 면류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면 의의 의미를 아는 것이 좋습니다. 의란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책감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만 그분 앞에 설 수 있으며,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완벽하게 수행했을 때에야 비로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e) 기쁨의 왕관, 또는 영혼 구원자들

왕관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19-20)

이것은 참된 제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그가 주님을 위해 구원한 영혼들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구원한 영혼이란 단순히 거듭났지만 끝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가 끝까지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는 모든 영혼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모든 아름다운 보상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모든 보상을 바라면서도 참된 제자로 거듭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묻겠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바울 형제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발견되기 위해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겼다고 말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는 또한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께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 바울의 본보기를 따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발견되기 위해 힘쓰자고 권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큰 보상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존 다니엘의 다른 책들

---

- (1) 제출 ( 권한 채널 )  
하나님 그리고 그 길로 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 의 나라 )
- (2) 장막은 ~ 의 그림자 이다  
그리스도
- (3) 말세 의 영적 기도 방법  
( 발효하는 언약 기도 )  
( 즉각적인 결과 )

이 책은 다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판매

## 저자 소개

저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아 1989년에 소속된 종교 단체 (세상이 조직한 종교 체계), 직장, 친척, 친구들과 모두 헤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권위(순종) 아래 두시고, 나이지리아 에누구의 아크푸오가-에메네에 있는 광야형 농장 정착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 했으며, 주님께서는 많은 환난, 기근, 고난, 궁핍, 매질, 투옥, 철야, 금식, 위험 등을 통해 그의 육체를 불로 태우시며 그의 안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으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이 모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1992년에 훈련을 마치고, 마지막 시대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전할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당신이 어떤 교파에 속하든, 그리스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난을 겪으시며 말씀을 찾는 거룩한 이들의 마음에 이 진리를 전하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는 교회, 가정, 사역 단체, 개인 등을 찾아다니며 이 진리를 전하십니다.

그는 주님의 귀한 선물인 메리 블레싱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메리 블레싱은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큰 은총의 진정한 원천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티모시 존(주니어), 벤자민 사무엘, 데이비드 조셉이라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